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전략과 주요내용

The Main Contents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ive Years Plan」

- 국토구조구축과 건설산업의 SOC투자를 중심으로 -



글 / 鄭武鎔
 (Chung, Moo Yong)
 도시계획기술사, 공학박사,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연세대/경원대 강사(현),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장.
 E-mail: dhconsul@chollian.net

What are main content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ive Years Plan? We will study for contents and policies of the plan's six themes.
 Six themes of the plan are the drive strategy, the rearing of the worldwide progressive cluster, the local promotion in the strategic industry, the formation of the square national circulation road network, the consolid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independent drop-out region, and the fund and raising plan. And especially, we will study the details of the national land-structure network formation.

1.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1) 추진전략 어떻게 되고 있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9)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된 데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대안으로 「행정중심도시」로 표현(이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특화개발을 통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전환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 지역의 자립기반 구축, 수도권의 질적 발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제1차 5개년계획(2004~2008)은 이 같은 전략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게 되며 제2차 5개년계획(2009~2013)에서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주력산업화 및 세계적 클러스터로의 진입, 「행정중심도시」 건설 등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3차 5개년계획(2014~2018)에서는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 및 세계적 일류클러스터와

의 경쟁 등을 통해 혁신의 질적 고도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2)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실리콘밸리, 시스타, 울루 등 세계적 클러스터와 견줄 수 있는 초일류 산업단지를 15년 내에 2~3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첨단성장동력을 1차 계획 기간 동안 기반조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기존 R&D기능에 상업화 역량을 보완하고 특별법을 제정,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창원·구미·울산·광주·반월시화·원주 등 6개 산업단지를 시범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과 160개 기업을 입주시켜 미래형 혁신도시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키로 하고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

고 교육·주거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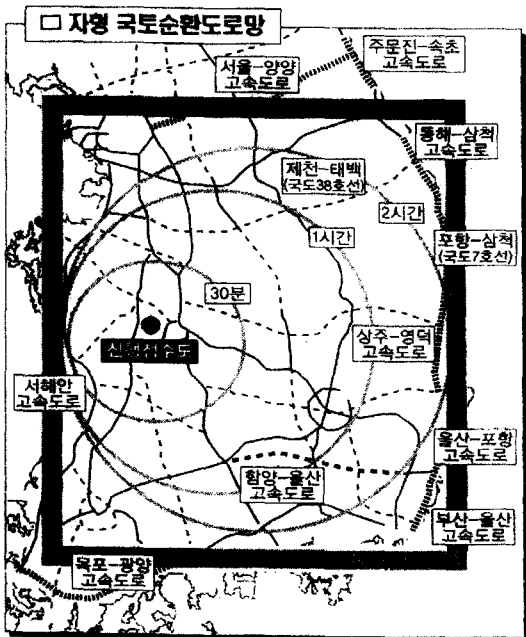
3) "□"자형 순환도로망 구축의 국토구조조정비

오는 2008년까지 전국에 실리콘벨리에 버금가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2~3곳이 조성되고 각 시·도 별로 4개 전략산업이 선정·육성돼 지역별 자립성장기반이 구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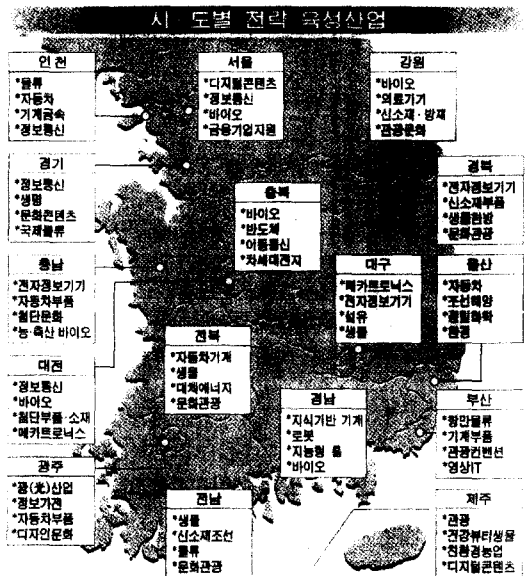
또한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을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행정중심도시」에 접근이 가능한 "□"자형 국토 순환도로망이 구축된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개념은 「행정중심도시」건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지방이전, 수도권 재정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대(大)개조에 나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으로는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고속도로)을 조기에 접속해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되도록 계획된다.



4)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4개 권역 16개 지역별로 정부는 각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인접한 광역지자체간에 산업별·기능별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 특성화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시·도에는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관련센터가 건설되며 제주·강원지역의 경우 관광개발사업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광역단위로 묶어 중부권은 지식기반서비스·제조업과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연계하고, 서남권은 문화관광, 식품 등을 신산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동남권은 철강·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소재·로봇 등 차세대성장동력을 연계하고, 제주·강원권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도록 초광역클러스터로 묶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5) 수도권 재정비 및 낙후지역 자립유도 정책은?

우선 2011년까지 충청권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를 지역별 전략산업과 권역별 특성과 연계해 지역별로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이 미래형 혁신도시는 교육·문화·주거여건을 모두 갖춘 50만평 2만명 수용 규모의 지식기반·생태·디지털 첨단미니신도시 형태로 오는 2008년까지 10여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한 수도권에는 환경용량을 감안한 과학적 도시계획 및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입지 및 대학 신·증설,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일극형 구조의 수도권을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키로 하고 서울지향형 교통축을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으로 개편하며 기존 경부·경인축을 대체할 수인축 등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키로 했다.

6)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구축

정부는 수도권·경부축 등 대도시권 위주의 투자로 동서축 등 다른 지역의 개발은 소외됐다고 판단하고 「행정중심도시」와 공공기관 이전과 도로망 확충 등 SOC측면에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고속도로)을 조기에 접속, 전국 어디서나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는 "ㄇ"자형 국토순환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태백권 등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동서축 내륙간선도로망 건설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함양~울산고속도로와 제천~태백간 38호선 국도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진해, 인천, 광양 등 3대 경제자유구

역을 개방거점으로 육성하고 TCR, TSR, TMR, TMGR 등 해외철도망과의 연결을 추진, 유라시아 진출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7) 투자재원 및 조달방안의 규모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 투자재원 규모는 66조 5,732억원으로 국비 44조 5,349억원, 지방비 14조 4,573억원, 민자 7조 6,110억원으로 구성된다.

국비의 경우 균특회계가 27조 8,751억원, 일반회계 등 기타 소요가 16조 6,598억원이며 사업별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31.9%, 지역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15.9%, 낙후지역 개발 15.7 등으로 구성되었다.

■ 부문별계획 사업별 재원

(단위:10억원)

	'04	'05	'06	'07	'08	'04~'08년 합계	증가율(%) '04~'08년
	국가균형발전 총액	10,865 (7,443)	12,316 (8,177)	13,375 (9,312)	14,394 (9,857)	15,926 (10,329)	66,875 (45,540)
지역전략산업 육성	2,724 (2,407)	3,064 (2,690)	3,249 (2,888)	3,431 (3,032)	3,585 (3,167)	16,055 (14,186)	7.1 (7.1)
지방대학 육성	443 (443)	488 (488)	551 (551)	613 (613)	656 (656)	2,753 (2,753)	10.3 (10.3)
지역과학· 기술진흥	148 (92)	152 (99)	208 (125)	280 (172)	343 (212)	1,133 (702)	23.2 (23.1)
지역문화· 관광육성	1,469 (510)	1,391 (495)	1,602 (595)	1,828 (597)	2,247 (636)	8,538 (2,835)	11.2 (5.7)
지역정보통신 진흥	230 (161)	258 (166)	251 (138)	158 (66)	288 (168)	1,186 (700)	5.8 (1.1)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20 (17)	17 (14)	17 (14)	19 (16)	21 (18)	97 (82)	1.6 (1.8)
지역경제 활성화	1,441 (1,019)	1,641 (1,139)	1,816 (1,290)	1,983 (1,372)	1,786 (1,330)	8,679 (6,152)	5.5 (6.9)
개방거점 확보	445 (240)	876 (334)	990 (365)	865 (355)	935 (438)	4,112 (1,733)	20.4 (16.2)
지역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1,954 (1,271)	2,065 (1,301)	2,110 (1,372)	2,289 (1,508)	2,572 (1,631)	10,992 (7,085)	7.1 (6.4)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	192 (93)	231 (115)	271 (130)	498 (368)	711 (392)	1,915 (1,299)	39.2 (58.6)
낙후지역개발	1,785 (1,159)	2,129 (1,331)	2,300 (1,438)	2,415 (1,527)	2,678 (1,547)	11,109 (7,004)	8.5 (7.5)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따른 재원은 국비 28조 9천억원, 지방비 12조원, 민자 19조 3천억원 등이다.

국비는 균특회계가 68.6%로 비중이 가장 높다.

국가균형발전 재원과 지역혁신발전 재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총 62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또한 지방재정력의 강화로 가용재원을 늘린다는

방침아래 교부세율인상 등을 통해 이전재원을 증가시키고 지역개발세 및 레저세 등 지역여건에 맞는 세원을 발굴해 과세대상을 확충토록 한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를 다각화하기 위해 지자체 책임 하에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프로젝트 컨설팅, 지방채 인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추진 SOC건설

1) 지역인프라 확충비전 · 목표전략

○ 추진목표로서는 '□자형 · 방사형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서횡축 간선도로망을 확충한다.

○ 「행정중심도시」연계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 정차도시 및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

○ 추진전략으로는 건설 중인 노선의 완성으로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 고속도로)을 연계한 "□"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조기완성하고 조기에 접속시킨다.

○ 국가 간선도로망(7×9)의 최종골격을 완성하기 위해 낙후된 동서축 동해안지역 간선망을 대폭 보강한다.

○ 전국 모든 지역이 2시간 내에 「행정중심도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망을 정비, 확충한다.

○ 정차역 중심으로 역세권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2) '□자형 · 방사형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은?

○ 건설 중인 노선의 완성으로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 고속도로)을 연계한 "□"

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조기 완성한다.

○ '전국 반일 생활권' 실현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서 횡축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간선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국가간선망(6,160 km)을 구축한다.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로드맵

추진방안	주요과제	추진일정				
		04	05	06	07	08
1. 확산수도형 발전기반 구축						
지역혁신역계 구축	지역혁신협의체 구성 지역의 혁신역할 기초조사 지역혁신사업의 중장기 조성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지역혁신역할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할 강화사업(INURI) 지방대학 구조개혁 지역별 CRC 설립·운영 정부R&D예산 지방지원비를 확대 국가과학기술총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술혁신 거점단지의 진주적 확대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학연협력 수범사례 확산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활성화 INNO-Cafe 조성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덕연구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4·9세 지역산업진흥사업 테마파크 등 특화관련단지 조성 지역별 클러스터화 연계한 외자유치					
2.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지역별 방사형 고속교통망	3개 연안축과 북부축 연계					
동서축 축간연결	낙후된 내륙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내륙 개발거점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거점 육성					
3. 낙후지역 화합기반 조성						
낙후지역 개발	낙후지역 선장 및 개발지원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추진					
농산어촌핵심 RIS구축	5년2차사업 시행 지방농업혁신클러스터 육성 1차산업 혁신과 2·3차산업 융합 주민정착확립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육성 지역의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 관광패키지 기획·개발 특성화된 지역 문화육성					
4.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수도권 기능의 지역분산	신행수도권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수도권의 지역적 편려	친환경적·계획적 도시관리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개선 재활 관리시스템 구축					
수도권의 경쟁력 추진	동력이 경제중심권으로 개발 다핵심산형구조로의 전환					

범례 : ■ 계획수립 ■ 부지협의 ■ 정례추진

- 국가 간선도로망(7×9)의 최종 골격을 완성하기 위해 낙후된 동서축 동해안지역 간선망 대폭 보강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인 고속도로를 계획 기간 내 완료하도록 적기 지원 국가 불류비 절감 및 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4차로 이상 국도를 확충('03년 35%) 하고,
 - 도심 교통난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토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원지방도로를 확충함으로써 교통 혼잡구간 해소를 통한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를 절감토록 한다.
 - 고속철도 개통의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건설 및 중간역을 추가 신설할 방침이다.
 - 대구~부산간(118.3km), 대전(22km)·대구(29km) 도심구간을 2010년까지 건설예정이다.
 -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중간역을 추가 신설(오송·김천·울산 3개역) 한다.
- 3) 정차도시 및 주변지역의 개발 유도**
- 광명역세권 및 아산신도시를 자족형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 정치역 중심으로 역세권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한다.
 - 관광자원 개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소 정차도시 및 주변지역의 특화 발전기반도 마련한다.
- 4) 'ㄱ'자형·방사형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 세부추진계획**
-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 고속도로) 조기 접속시킨다.
 - 특히 "ㄱ"자형 국토순환도로망 완성과 낙후된 동서축 간선망 보강을 위해 서울-양양(152.4km),

함양-울산(130.8km), 목포-광양(101.1km) 고속도로를 중점 추진하고, 상주-영덕(106.2km) 고속도로도 사업반영 추진한다. 또한 부산-울산(40.0km), 울산-포항(54.2km), 동해-삼척(19.0km)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5) 동서 횡축의 국가간선도로망 완성

- 태백권 등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내륙 국가간선도로망, 특히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건설한다.
 - 추진 중인 신설 19개(1,129.4km), 확장 18개(587.0km) 구간 중 2004년에 3개 구간(신설 149.8km, 확장 56.1km)을 개통하고, 2개 구간을 신규 착수한다.
 - 현재 준공구간 : 충주-상주(81.4km), 대구-포항(68.4km), 강릉-동해(56.1km)이고
 - 신규착수 : 춘천-양양(91.0km), 동해-삼척(19.0km)이며
 - 대구~부산(82.1km), 서울외곽(고양~남양주, 36.3km), 서울~춘천(61.4km), 서수원~평택(39.5km)등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 6) "ㄱ"자형 국토순환도로망 및 동서축 보강을 위한 국도, 지방도 건설**
-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건설 국도의 경우 2004년에 38%(5,380km)을 달성(2003년, 35%)하고, 경제성·효율성을 높인 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06~2010)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한다.
 - 특히, 낙후된 동서축 보강 및 "ㄱ"자형 국토순환도로망 완성을 위해 체천-태백(국도38호, 93km), 포항-삼척(국도7호, 152.9km) 중점 투자 필요
 - 도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착수사업을 조기 완공하면서, 재정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도시내 도로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의 Master Plan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 고속도로·국도로 이루어진 간선도로망을 보강할 수 있는 구간을 상위계획과의 체계적 연계 하에 '국가지원지방도'에 투자토록 한다.
- 고속도로IC, 국도확장사업 연계구간 및 비포장 구간 등은 우선 투자하되 국도병행구간은 지양한다.

7) 「행정중심도시」연계 도로망 조속 추진은?

- 「행정중심도시」와 강원권 연계를 위한 평택~음성~충주~제천~삼척~동해~속초간 고속도로 5개, 국도 5개 등 총 10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 고속도로 170.7km : 평택-음성(31.3km), 음성-충주(54.4km), 충주-제천(24km), 주문진-속초(51.0km), 동해-삼척(19km)
- 국도 259.3km : 제천-태백(93km), 태백-삼척(40.9km), 영월-장평(51.7km), 홍천-속초(48.5km), 원주-목계(25.2km)

8) 「행정중심도시」연계 철도망 개량사업

- 「행정중심도시」연계 철도망 개량사업(복선 및 전철화)을 지속 추진(충북선 전철화 등 4개 사업)한다.
- 충북선 조치원~봉양간 115.0km 복선→전철화 하고
-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16.5km 단선→복선 전철화 하여
- 경부선 수원~천안간 55.6km 복선→2복선 전철화 하고
- 경부선 조치원~대구간 158.0km 복선→전철화 한다.

9) 고속철도 2단계 건설 및 중간역 추가 신설

-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 대구이남 용지매수 완료 및 전구간 노반공사 시행과 용지매수 착수(2004~2005)하고
- 궤도, 전기, 신호 등 공사 착수(2007)하며
- 추가로 신설되는 중간역(오송, 김천, 울산)은 역 입지 확정 후 2010년까지 건설토록 한다.

10) 정차도시 및 주변지역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

-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토록 한다.

- 거점 정차역을 중심으로 광역권 개발계획,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 시범사업 추진한다.

-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등을 통하여 광명·아산신도시 역세권을 고급 주거·업무·상업·문화지구로 조성한다.
-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 정차도시 주변지역의 특화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한다는 것이다.

11) 기간철도망 확충내용

- 전국적 철도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철도건설을 추진한다.
- 장항선 장항~군산간 철도연결 등 총 22개 노선 1,227.8km를 건설한다.
- 선로용량이 부족한 기존선을 복선·전철화로 추진한다.
- 총 16개 노선, 25개 구간 1,824.2km를 복선화·전철화로 한다.
- 굴곡이 심한 기존선로의 직선화 및 이설공사를

추진한다.

- 전라선 신리~여수간(162.6km) 및 장항선 온양~장항간(75.6km) 직선화,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장대터널(16.2km) 공사 추진 및 대구선 동대구~청천간(14.0km) 철도이설 등을 추진한다.

12) 남북철도와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계 운행 추진

- 남북철도 연결 후 북한노선을 이용하여 대륙횡단철도와 연결을 추진한다.
 - 경의선~청년이천선~평라선~TSR·TMR
 - 경의선~평의선~TCR·TMGR
 - 동해선~평라선~TSR·TMR 등
- 남·북·러 3자 철도관계기관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을 강구한다.
- 한·러 교통협력위원회 및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대륙철도 연계 운행을 위한 국제 협력기반을 구축토록 한다.

○ 대륙철도망 현황

구분	구 간	거리(km)	궤 간
TSR	블라디보스토크~울란우테 ~모스크바	9,297	광 궤
TCR	연운항~아라산쿠 ~자우랄리아역에서 TSR과 연결	8,613	표준궤
TMR	도문~만주리 ~카립스카야역에서 TSR과 연결	7,721	중국 표준궤
TMGR	천진~울란바토르 ~울란우테역에서 TSR과 연결	7,753	몽골 광궤

13)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 추진은?

- 2002. 9월 착공하여 지뢰제거 및 환경영향 평가 완료 후 철도·도로 노반 및 구조물공사 실시 중 (공정률 : 철도 21%, 도로 55% 진척)에 있다.
- 지뢰제거와 노반공사는 육군이 담당하고, 궤도부설과 도로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토록 한다.
- 군사분계선에서 통일전망대 구간(약 4km)은 거의 완공 목표로 공사 추진했다.
- 통일전망대~저진 구간(약 3km) 및 출입국관리

시설(역사 포함) 공사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완공과 동시에 열차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14) 대륙횡단철도연결사업 추진계획은?

- 남북철도연결공사와의 완료는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단계로써 경의선 철도 남측구간은 기 완료되었고, 동해선은 2005년 완공토록 추진한다.
- 북한철도 현대화 문제는 대륙철도 연계운행시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문제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철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북측 철도 실태를 조사하도록 한다.
-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를 통하여 2단계로 남·북·러 3자 철도관계기관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북한철도의 현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3단계로 북측 철도 구간 중, 우선 TSR·TCR 연계노선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간선망에 대한 개·보수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3 경제자유구역 개방거점의 인프라 확충 계획은?

1) 추진목표

- 경제자유구역을 개방거점으로 육성한다.
-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대륙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진출기반을 마련하며
- 한·중·일간 분업체제 구축을 통해 공공이익 극대화를 도모한다.

2) 추진전략

- 경제자유구역에서 IT 등 첨단산업, 물류·금융 등의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토록 한다.
- 개성공단 건설과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러시아 등과

의 협력 하에 남북철도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계
를 추진하며

- 생산·연구개발 등에서의 수직적·수평적 분
업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3)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허브」로

동아시아 주요 공항들이 동북아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 조기 확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
천 국제공항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하여 2단계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

현재 주변공항의 확장시기 : 책략곡(1999), 간사
이(1999), 창이(1996)국제공항이 있다.

- 인천국제공항 1단계 시설은 개항을 위한 기본
시설 위주로 건설한 것으로서, 2008년 이후 항
공수요의 적정처리를 위해 시설확장이 필요하다.

4)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일원
- 사업기간 : 2002~2008(7년)
- 총사업비 : 4조 7,032억원
- 사업시행주체 : 인천국제공항공사

5) 동북아 각국은 급증하는 해상물동량, 특히
중국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 확충에
총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현재 상해항은 52선석 규모의 신항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도, 천진항 등 북중국 주요 항만들로
현 시설규모의 2배 이상으로 확충을 추진 중이다.

- 국내 항만시설 확보율은 79%에 불과하고, 특
히 고부가가치형 종합물류산업 공간인 항만배
후물류단지가 전무한 실정이다.

6) 부산신항·광양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 부산신항·광양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3선석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부두 개발과
연계하여 부산신항·광양항에 총 232만평의
배후부지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

-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물류단지내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 고부가가치형 종합물류산업
집적화 및 항만경쟁력을 강화 한다.

7) 부산신항·광양항 인프라 확충계획은?

-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3선석을 단계적으
로 확충, 연간 1,737만 TEU의 처리능력 확보
- 부두개발과 연계하여 232만평의 배후부지를
조성하고, 내륙과의 효율적인 연계수송을 위해
배후수송로도 적기에 구축한다.
- 부산신항의 항만시설은 2011년, 배후부지(1차
93만평)는 2013년 까지 완공
- 상해항의 확대개발 전에 동북아 중심항만의 지
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부산신항 7
선석, 광양항 16선석 확보·운영

구분	부산신항(1995~2013)	광양항(1987~2011)
개발계획	30선석	33선석(8선석, 기완공)
처리능력	804만TEU	933만TEU
배후부지	120만평	112만평
투자비(추정)	9조 1,542억원	6조 6,323억원

- 특히, 상해신항만 1단계(5선석) 개장(2006.1)에
대응하여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에 개장(당초
2007.8 → 2006.1)하고,

- 첨단 무인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을 2008
년까지 광양항에 건설·운영하여 항만생산성
제고

-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조기 공급이 필
요한 부산신항 배후 물류부지 22만평과 광양
항 배후물류부지 10만평의 공급 시기 단축(당
초 2008년에서 2006년까지 공급)

8) 현대가 복측과 개성공단건설을 착공하고, 토
지공사와 공동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의 내용은?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
평)중 1단계(100만평) 개발에 3천억원을 투자.
250개 업체, 22천명 고용 및 연 20억불 수출

계획 방침이다.

- 북측과 토지임차료 합의(1㎡당 1불)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15만원 이내로 낮추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원활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남북간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표(2003.8), 통행 등 4개 교류합의서를 체결하여 발표 추진 중에 있다.

- 전략물자의 북한 내 반입통제(바세나르체제 등)와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수출시 고율관세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9) 개성공단 건설의 세부계획내용은?

- 자유로운 물품반입 및 판매방안 마련
- 개성공단 반입물자의 사용자가 남한 기업이여 검증 가능성을 미·일 등에 설득하고, 내부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수출제한 품목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강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FTA협정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로서 한국을 인정토록 하는' 조항의 반영을 추진한다.
- 공단의 시범단지 조성 및 관리기관 설립해서 지난 2003년 6월 개성공업지구 착공이 이루어진 후 2004년이 시범단지 분양 및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
- 총 2만 8,000평의 시범단지에 15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 개시하고 1단계로 100만평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고, 2006년까지 개발완료 및 2007년부터 기업입주를 할 계획이다.
-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산자부, 통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성공단지원기획단' 구성을 추진하여 시범단지(1만평 규모)를 조성, 조기에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10)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원활한 추진

- 동해선 철도·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동해선 철도·도로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동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조치하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조치토록 한다.

- 연결공사를 2005년에 완료하도록 하고, 북측과 협의하여 단계별 개통을 추진한다.

4. 결론

세부추진계획까지를 들여다 본 결과 이들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도 2만불 소득시대를 달성하는 목표연도 2008년의 그 「비전」은 밝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형 뉴딜'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2차 년도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한국형뉴딜정책을 거창하게 볼 필요 없이 우선 생활기반시설조성(노인요양센터, 대학기숙사 등)에서부터 주택공급확대(임대주택활성화)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까지 포함되고 특히 SOC사업, 각종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 등 종합투자계획이 성공적 사례로 풀어간다면 일자리 창출도 자연해소 될 것이다.
-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회기반시설인 SOC간접자본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에 교육, 의료서비스 개방물꼬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부산, 인천, 광양, 제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 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 개방화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원고 접수일 2005년 1월 18일)